

#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The Study on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Hyangsansamchebeop*  
Owned by Horim Museum

강 순 애 (Kang, Soon-Ae)\*\*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과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의 교감 비교 |
| 2.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 5. 결 론   |
| 3.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글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서지적 특징,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과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의 비교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향산삼체법』은 낙장(앞부분 1-5장, 뒷부분 41장-42장)이 있지만 세종 27년(144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이다. 이 판본은 이후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저본이 되었고,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경본은 중종 10년(1515)경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되었다.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와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활자를 10종씩 추출하여 판본간의 비교를 통한 서지적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 초주갑인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활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초주갑인자 활자는 전체적으로 해정한 필법의 글씨가 부드럽고 균정미가 있다. 이에 비해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 활자들은 전체적으로 가늘어졌고, 종획과 횡획이 교차하는 부분은 심하게 마멸되거나 균형미를 잃었으며, 좌우의 삐침 획들도 교차하듯 어우러지는 미적 균형이 없다. 둘째, 초주갑인자 활자와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초주갑인자 활자는 해정하고 균정미가 있고, 파임이 단순하며, 필체의 연결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는 훨씬 더 해정하고, 기필과 삐침이 매우 유려(流麗)하고, 파임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그리고 어떤 글자에서는 필체의 흐름이 다음 글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셋째, 초주갑인자와 목활자 보자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초주갑인자 활자들은 활자가 해정하고 정연하다. 이에 비해 보주 목활자는 글자의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새김이 거칠고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글자체가 유난히 크고 뾰뾰하며 그중에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는 것도 있다. 글자체가 일그러져 있고, 횡획의 일부가 끊겨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글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 A본과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B본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6가지 사례를 추출하였다. 대부분 초주갑인자본의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비의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서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2015. 5. 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5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사례가 옳았고, 통용자가 쓰이거나 속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분야, 활자 관련분야, 한문학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호림박물관 소장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 중종 10년(1515)경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명종 20년(1563)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각본

### <ABSTRACT>

This paper will conduct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Hyangsansamchebeop* owned by Horim Museum by reviewing in the order of it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its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 comparison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created around the 27th year of Sejong's reign(1445) with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produced around the 10th year of Jungjong's reign(1515). *Hyangsansamchebeop* owned by Horim Museum with seven pages missing (Chapter 1-5 front, rear section Chapter 41-42) is the only First Cast of Gapinja Type created around the 27th year of Sejong's reign(1445). This edition has become jeobon of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produced around the 10th year of Jungjong's reign(1515). The copy owned by Hosa Archives in Japan republished in the 20th year of Myeongjong's reign(1565). Taken together bibliographic feature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and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by extracting 10 kinds of type, First,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and the worn type of the Supplement Cast of Gapinja,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are soft, graceful, and valanced as a whole. In contrast, the worn type of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have been thinner type for seventy years as a whole, the crossing portions of horizontal and vertical strokes are badly worn and off balanced, and the drawing strokes from side to side are no the aesthetic balance that seemed to intersect. Second, compare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with the new molded cast type of the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in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Scripts are refined, waves proved to be simple, and connection of handwriting are invisible. while in the new molded type, scripts are even more refined and well-balanced, the beginning of the letter and its drawing strokes are beautiful, waves proved to be very flexible and elegant, and in some scripts appears as it is connected to the flow of handwriting. Third, compare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with the new wooden type of the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in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Scripts are refined, In contrast, the wooden supplement types tend to have inconsistent thickness and size. the carvings are rough, Knife incisions show clearly when magnified. scripts are exceptionally large and stiff and some scripts proved to be balanced. The letters are distorted, and the part of the horizontal strokes are broken, and most of the letters are awkward. A comparison done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Model A), created around the 27th year of Sejong's reign(1445), with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produced around the 10th year of Jungjong's reign(1515)(Model B) yielded the following 6 kinds of results. Most cases of Model A are right. sometimes the popular form of a Chinese character and the same meaning letters of different characters a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ost fundamental research in bibliography, typology-related fields, and Korean classics.

Key words: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Hyangsansamchebeop*, *Hyangsansamchebeop* Owned by Horim Museum,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of the 27th year of Sejong's reign(1445),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of the 10th year of Jungjong's reign(1515), the Copy of the 20th year of Myeongjong's reign(1565)

## 1. 서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 백거이의 시 오언율시·칠언율시·칠언절구 가운데 185수를 뽑아 세종 27년(1445)경에 편찬하여 간행한 단권본이다. 안평대군이 백거이의 시를 왜 선집하였는지는 『향산삼체법』 뒤에 붙인 그의 발문에 잘 나타난다. 발문에 의하면,<sup>1)</sup> “백거이의 시는 자못 소회를 푸는 맛이 있어 달도(達道)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 옛사람 중에 그 시를 편집한 이가 혹은 양괄(養恬)<sup>2)</sup>이라 하고 혹은 조도(助道)라 했다. [일부 중략] 이 책을 출판하여 이름을 『향산삼체법』이라 하고 달도한 자들과 더불어 읽으려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종 27년(1445) 간행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은 낙장(앞부분 1-5장, 뒷부분 35장, 38장, 41장-42장)이 있지만 유일본이다.<sup>3)</sup> 이 판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다. 먼저 발굴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 판본간의 비교를 통하여 기존에 학계에서 주장해왔던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와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사이에 서지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초주갑인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활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주갑인자 활자와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는 어떻게 다른지, 초주갑인자와 목활자 보자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頗有遣懷之作 故達道之人率多愛之 古人選錄其詩者 或名曰養恬 或名曰助道 …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庶幾與達道者共之云 乙丑六月匪懈堂書.”

2) 『莊子』外篇 第16 繕性.

“古之治道者 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옛날의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욕심을 끊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지혜를 길렀다. 나면서부터 지혜로써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를 두고서 지혜로써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담담함을 기르는 것이라 말한다].”

3) 이 논문에서 데이터로 사용하는 세종 27년(1445) 간행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의 사진 35장은 호림박물관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이 사진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호림박물관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필자는 2010년 4월에 중종 10년(1515)경에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 간행한 국내외의 유일본인 『향산삼체법』을 발굴하여 초주갑인자보주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임을 입증하였고, 일본 봉좌문고(蓬左文庫)에는 명종 20년(1565)경 번각본이 있는데 이는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번각한 것으로 밝혔다.<sup>4)</sup> 또한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 및 교감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추출했는데, 그 결과물로는 오언율시에 관한 텍스트 연구,<sup>5)</sup>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sup>6)</sup> 및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sup>7)</sup>가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향산삼체법』과 관련된 기존의 이설들을 정리하고, 텍스트의 상세한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초주갑인자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와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의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활자 관련 분야, 한문학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 2.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향산삼체법』의 저자는 백거이(白居易, 772-846)이고 편집, 선집 및 간행의 주관자는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다. 백거이의 문집은 경

---

4) 강순애,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5)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6)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65-107.

7)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51-82.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중(敬宗) 즉위년(824) 목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원진(元稹)에 의해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50권이 편찬되었다. 당시 백거이의 나이는 53세였으며 ‘長慶’은 목종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이 바뀐 연호였다. 따라서 『백씨장경집』은 죽은 천자의 후한 대접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문종(文宗) 9년(835)에 백거이가 그의 문집을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보낸 것은 60권본, 문종 10년(836)에 동도(東都) 승선사(勝善寺)에 보낸 것은 65권본, 문종 13년(839) 소주(蘇州) 선림사(禪林寺)로 보낸 것은 67권본이었다. 그때그때 모은 문집의 분량이 달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권수가 다르다. 여하튼 그의 문집은 원진에 의해 편찬된 50권 이외에 후집(後集) 20권이 정리되었고, 이어서 무종(武宗) 5년(845) 5권의 속후집(續後集)이 편찬됨으로써 합계 75권의 대집이 완성되었다. 이후 그는 선종(宣宗) 즉위년(846) 8월, 75세의 나이로 낙양(洛陽) 이도리(履道里)에서 생애를 마감했다.<sup>8)</sup> 백거이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시를 편집하였다.<sup>9)</sup> 그 중에서 2차 편집이 이루어졌던 경종 즉위년(824)까지만 풍유시(諷諭詩)·한적시(閑寂詩)·감상시(感傷詩)·잡율시(雜律詩)의 4분류법을 적용했고, 이후로는 격시(格詩)와 율시(律詩)의 2분류법을 적용했다. 백거이는 모두 75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현재 71권이 남아 있다.<sup>10)</sup>

안평대군 이용<sup>11)</sup>은 백거이 시 3,000여 수 중에서 150제(題) 185수(首)를 뽑아

8)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15. 4. 20]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97-106.

9)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8.

10)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11) <[http://cu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http://cu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 [cited 2015. 4. 20].

조선 초기 왕족 서예가. 자는 淸之, 호는 匪懈堂, 琅玕居士, 梅竹軒. 이름은 瑒. 세종의 셋째 아들. 세종 10년(1428) 안평대군에 봉해졌고, 문종 때 조정의 배후실력자로 등장하여, 둘째 형 수양대군의 세력과 맞서 있었다. 1453년 癸酉靖難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교동에서 賜死되었다. 詩文, 그림, 가야금 등에 능하고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선집하여 『향산삼체법』이라 하였는데 향산(香山)은 백거이의 호이며, 삼체(三體)는 오언사율(五言四律), 칠언사율(七言四律), 칠언절구(七言絕句)를 말한다. 이 시 중 제1수부터 제72수(제1제-제41제)까지는 오언율시, 제73수부터 제134수(제42제-제103제)까지는 칠언율시, 제135수부터 제185수(제104제-제146제)까지는 칠언절구로 되어 있다.<sup>12)</sup>

『향산삼체법』 끝에 세종(世宗) 27년(1445)에 안평대군이 붙인 발문<sup>13)</sup>이 있는데, 이 내용을 참조하면, “안평대군이 백낙천의 시집 원본을 구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번다하므로 찾아 읽기가 어려웠다. 그의 시 중에서 선집하여 삼체로 분류하여 간행하면서 이름을 『향산삼체법』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안평대군이 발문을 쓰고 간행한 초주갑인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봉좌문고 소장본에는 명종 20년(1565)경에 김덕룡(金德龍)이 간행하면서 쓴 발문이 실려 있는데, 이 『향산삼체법』 한 편을 구하여 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서관(西關) 절도사로 부임하여 통판(通判) 조호문(趙好問)과 상의하고 간행하여 널리 보급한다는 내용이다.<sup>14)</sup> 이에 대해 일본 학자는 김덕룡의 간기(刊記) 중 “家藏久矣”의 구절을 인용해서 간행 연대를 명종 20년(1565)까지로 내려 잡고 있으며,<sup>15)</sup> 심우준 교수는 일본 학자의 설을 비판하고 세종 27년(1445)에 고본(稿本)이 확정되었고 명종 20년(1565)에는 단순히 간행작업만 수행했다고 보았다.<sup>16)</sup> 천혜봉 교수는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한국 전적을 조사하면서 김덕룡의 번각본이 초주갑인자로 인출(印出)했던 책을 번각(翻刻)한 것으로 판단하

12)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18.

13)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 余幸得元本 浩穰繁亂 難於搜閱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 乙丑六月匪懈堂書.”

14)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明宗 20年(1565) 跋文.

“右香山三體法一編 得以家藏久矣 今茲來鎮西關也 謀諸趙通判好問 鈔梓廣傳 … 岿嘉靖乙丑秋 節度使金德龍書于香雪軒.”

15)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16) 심우준(1997), 22-23.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였다.<sup>17)</sup> 황위주 교수는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sup>18)</sup>고 하였다. 허경진 교수는 세종 27년(1445)에 붙인 발문에 나오는 “出之”는 “내어놓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를 “출판한다”는 뜻으로 보았다. 안평대군이 분명히 “출판한다”고 기록했는데도 120년 뒤에야 처음 출판한 것처럼 알려진 이유는 일본 봉좌문고 소장본에 명종 20년(1565)에 김덕룡이 간행하면서 쓴 발문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9)</sup>

여러 가지 추론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천혜봉 교수가 명종 20년(1565)의 번각본으로 본 것인데 이는 원본이 초주갑인자본에 근거한 것이므로 초주갑인자본이 발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허경진 교수도 발문 중의 “出之”를 간행의 뜻으로 보아 원본이 간행본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향산삼체법』 초주갑인자본은 천혜봉 교수와 허경진 교수의 추론대로 안평대군 이용이 선집했던 바로 세종 27년(1445)경에 간행된 것임을 알려주는 원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판본은 이후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입보자본의 저본이 되고, 봉좌문고(104. 1.23)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경본은 중종 10년(1515)경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판본이다. 결국 각 판본들은 서로 연계되고 간행되며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산삼체법』 초주갑인자본에 대한 서지적인 특징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3.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향산삼체법』의 서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세종 27년(1445)경에 간행되었다. 보존 상태는 좋지 않고 각 장의 가장자리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다.

17)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312.

18)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27.

19)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103.

판식은 ‘四周單邊 22.6×15.9cm, 有界, 9行15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며, 총 42장 중 앞부분 1장-5장, 뒷부분 35장, 38장, 41장-42장에 결장이 있다. 표제는 첨체로 “香山詩”이고(<그림 1> 참조), 책의 권수제 부분과 끝부분에 있는 안평대군 이용의 발문은 떨어져 나갔다.



<그림 1> 세종 27년(1445) 간행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의 표지 부분

세종 27년(1445)경에 주조된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의 활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본 혼입보자본의 활자본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첫째, 초주갑인자본에서 선정된 활자들은 세종 27년(1445)경의 활자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중종 10년(1515)경에 인출된 활자들 중 글자 획이 닳아 가늘어지고, 심한 것은 글자 획이 일그러진 것이 있는데 이들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면 70년이 지난 후의 초주갑인자의 마멸된 활자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들 활자 중 심하게 마멸되고 일그러진 10종을 선정하여 보면, 6장 전면 6행의 ‘長’, 7장 전면 4행의 ‘士’, 9장 후면 2행의 ‘何’, 10장 전면 5행의 ‘史’, 13장 전면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6행의 ‘門’, 16장 전면 5행의 ‘風’, 16장 후면 7행의 ‘太’, 17장 전면 3행의 ‘故’, 17장 전면 7행의 ‘夫’, 22장 전면 3행의 ‘得’ 등이다. 이들 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선정된 각 활자들을 10종씩 추출하고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활자와 중종 10년(1515)경 마멸된 활자의 비교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마멸된 활자
1)		
	6장전면6행 長	6장전면6행 長
2)		
	7장전면4행 士	7장전면4행 士
3)		
	9장후면2행 何	9장후면2행 何
4)		
	10장전면5행 史	10장전면5행 史
5)		
	13장전면6행 門	13장전면6행 門
6)		
	16장전면5행 風	16장전면5행 風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마멸된 활자
7)		
	16장후면7행 太	16장후면7행 太
8)		
	17장전면3행 故	17장전면3행 故
9)		
	17장전면7행 夫	17장전면7행 夫
10)		
	22장전면3행 得	22장전면3행 得

위의 <표 1>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할 수 있다.

1)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는 갑인자 주조에 있어서 글자본은 경연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졸(僞善陰鷲)』, 『논어(論語)』 등에서 가려냈고,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 유(瑄)가 닮게 써서 보충하였다. 이 글자체는 왕희지(王羲之)의 스승인 위부인자(衛夫人字) 체를 닮았다. 글자 획에 필력의 약동을 잘 나타내며, 글자 사이에 여유도 있고 판면이 자못 크고 늙름하다.<sup>20)</sup>

이에 비해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 활자는 70년이 지난 중종 10년(1515)경에는 활자가 마멸되어 가늘어지거나, 획이 심하게 마멸된 것은 이지러져서 글자체의 중심이 뒤틀어지고 균정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활자를

20) 千惠鳳,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48-49.



일곱째, '太'는 '太'로 변화되었다. 초주갑인자본의 '太'는 大에 점을 찍었는데, 횡획을 중심으로 반분하여 좌측 삐침과 우측 삐침을 가로획의 폭이 삼각구도가 되게 하고 중심에 점을 찍었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太'는 횡획과 좌측 삐침 및 우측 삐침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 마멸되어 획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균형미가 깨졌다.

여덟째, '故'는 '故'로 변화되었다. 초주갑인자본의 '故'는 등글월문 '女' 부수에 옛 고인 '古'가 합성된 자이다. '古'와 '女'의 서로 교차하는 획들이 공간 안에 잘 구성되어 균정미가 일품이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故'는 글자가 많이 마멸되어 일그러졌다. '故'의 획순은 '一 十 十 古 古 古 古 古 故'이다. 1번째와 2번째 획이 교차하는 지점이 마멸되어 중심이 어그러졌고, 6번째 왼쪽 삐침 끝이 거의 마멸되어 7번째 오른쪽 삐침의 획이 시작하는 부분이 서로 가는 선이 교차하듯 어우러지는 멋이 없어졌다.

아홉째, '夫'는 '夫'로 변화되었다. 초주갑인자본의 '夫'는 큰대 '大' 부수에 한 일 '一'을 얹은 형상이다. 이 글자는 위의 '太'에 사용된 '大'보다 부드럽게 자형을 만들고 그 위에 살짝 '一'을 얹어서 균정미를 더하였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夫'는 마멸되어 일그러졌다. '夫'의 획순은 '一 二 夫 夫'인데, 3번째 왼쪽 삐침 획이 마멸되어 1번째와 2번째 획이 만나는 지점의 중심이 틀어졌다.

열 번째, '得'은 '得'으로 변화되었다. 초주갑인자본의 '得'은 왕희지 「황정경」의 '得'과 매우 비슷하다. 조금 걸을 척 '彳'의 부수를 약간 짧게 하고 본체인 '得'은 좀 더 크게 자리하도록 구성하여 균정미를 살렸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得'은 마멸되어 가늘어졌다.

2)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와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 활자들을 비교하여 갑인자 보주 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교할 수 있다. 이들 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선정된 각 활자들을 10종씩 추출하고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표 2>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활자와 중종 10년(1515)경 보주한 활자의 비교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 활자
1)		
	7장전면3행 竹	7장전면3행 竹
2)		
	8장후면7행 夢	8장후면7행 夢
3)		
	11장후면8행 巳	11장후면8행 巳
4)		
	15장전면1행 上	15장전면1행 上
5)		
	17장전면2행 以	17장전면2행 以
6)		
	21장전면6행 香	21장전면6행 香
7)		
	23장전면2행 宅	23장전면2행 宅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 활자
8)		
	24장후면6행 堂	24장후면6행 堂
9)		
	26장전면5행 把	26장전면5행 把
10)		
	33장전면2행 旬	33장전면2행 旬

위의 <표 2>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장 전면 3행의 ‘竹’과 ‘竹’, 8장 후면 7행의 ‘夢’과 ‘夢’, 15장 전면 1행의 ‘上’과 ‘上’, 21장 전면 6행의 ‘香’과 ‘香’, 23장 전면 2행의 ‘宅’과 ‘宅’, 26장 전면 5행의 ‘把’와 ‘把’, 33장 전면 2행의 ‘旬’과 ‘旬’ 등을 비교해 보면, 세종 27년(1445)경에 주조된 활자들은 해정하고 균정미가 있는데, 중종 10년(1515)경의 보자는 해정하지만 기필되는 부분과 삐침 등이 매우 유려(流麗)하다.

둘째, 세종 27년(1445)경에 주조된 11장 후면 8행의 ‘巴’는 중종 10년(1515)경의 보자는 ‘巴’로 바뀌었다. ‘巴’는 글자의 과임이 단순한데 비해서 ‘巴’는 글자의 과임이 훨씬 안쪽으로 깊고 유연성에서 붓글씨의 미학이 드러나 아름답다.


셋째, 세종 27년경에 주조된 활자 중 17장 전면 2행의 ‘以’와 24장 후면 6행의 ‘堂’은 중종 10년(1515)경에 주조된 보자는 ‘以’와 ‘堂’으로 바뀌었다. ‘以’와 ‘堂’은 필체의 연결이 없는 해정한 인서체인데 비해, ‘以’와 ‘堂’의 보자는 필체의 흐름이 다음 글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매우 정교하게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3)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와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활자들을 비교하여 목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교할 수 있다. 이들 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선정된 각 활자들을 10종씩 추출하고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활자와 중종 10년(1515)경 보주 목활자의 비교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 목활자
1)		
	6장전면6행 改	6장전면6행 改
2)		
	6장후면9행 陰	6장후면9행 陰
3)		
	8장전면9행 秋	8장전면9행 秋
4)		
	8장후면9행 寒	8장후면9행 寒
5)		
	10장전면5행 春	10장전면5행 春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 목활자
6)		
	13장후면3행 高	13장후면3행 高
7)		
	20장전면8행 鼓	20장전면8행 鼓
8)		
	24장전면5행 湖	24장전면5행 湖
9)		
	28장전면3행 家	28장전면3행 家
10)		
	29장후면6행 張	29장후면6행 張

위 <표 3>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 활자가 해정하고 정연한데 비해 중종 10년(1515)경에 만들어진 목활자 보자들은 전체적으로 초주갑인자의 활자 자체를 잘 본뜬 것은 별로 없다. 글자 모양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균정하질 않다. 목활자 보자는 매우 거칠고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6장 전면 6행의 ‘改’와 ‘改’ 중 ‘改’, 6장 후면 9행의 ‘陰’과 ‘陰’ 중의 ‘陰’, 8장 전면 9행의 ‘秋’와 ‘秋’ 중 ‘秋’, 8장 후면 9행의 ‘寒’과 ‘寒’ 중의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寒’, 10장 전면 5행의 ‘春’과 ‘春’ 중의 ‘春’의 목활자 보자들은 글자체가 유난히 크고 뾰뾰하여 멋이 없다.

셋째, 13장 후면 3행의 ‘高’와 ‘高’의 ‘高’는 목활자 보주 중 자체가 가장 균형이 잡혀 있다.

넷째, 20장 전면 8행의 ‘鼓’와 ‘鼓’ 중의 ‘鼓’는 글자체가 일그러져 있고, 28장 전면 3행의 ‘家’와 ‘家’ 중의 ‘家’는 글자체가 매우 둔탁하다.

다섯째, 24장 전면 5행의 ‘湖’와 ‘湖’를 보면, 중종 10년(1515)경의 ‘湖’는 구성하고 있는 획 중 ‘古’획의 횡획 일부가 끊어져 있다. 이는 목활자나 목판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섯째, 29장 후면 6행의 ‘張’과 ‘張’을 비교하면, 부수인 활궁의 ‘弓’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체의 부수는 필획의 흐름을 따라 필사하여 구조된 데 비해 중종 10년(1515)경의 목활자는 칼자국이 드러나면서도 글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 4.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과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 혼입보자본과의 교감 비교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과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마멸된 활자들을 골라내어 쓸 만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보주에 있어 활자와 목활자를 어느 정도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이니 교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활자본 간의 관각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상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을 A본,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B본으로 약칭하여 <표 4>로 비교하고자 한다.

<표 4>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과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비교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본 (A본)	중종 10년(1515)경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B본)	비고
1) 11장후면4행	江轉富陽斜	江轉富楊陽斜	A본: 陽, B본: 楊
2) 11장후면9행	曲洛岸邊花	曲落岸邊花	A본: 洛, B본: 落
3) 18장후면4행	誰料江邊懷我夜	誰科江邊懷我夜	A본: 料, B본: 科
4) 22장전면7행	茫茫萬事坐成空	芒芒萬事坐成空	A본: 茫茫, B본: 芒芒 茫茫과 芒芒은 통용자임.
5) 26장후면2행	深藏牢閉後房中	深藏牢閉後爰中	A본: 房, B본: 旁
6) 28장후면4행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 言歎著在詩篇今年冬各 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 賀一以自嘲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 言歎着在詩篇今年冬各 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 賀一以自嘲	A본: 著, B본: 着

위 <표 4>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장 후면 4행의 구절은 백거이가 봄을 노래한 ‘和春深二十首’ 연작시(제 39수-제58수) 중의 제51수인 뱃사공의 집인 ‘潮戶家’를 노래한 것 중의 제8구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하처춘심호何處春深好아	춘심조호가春深潮戶家라
도번삼월설濤翻三月雪이오	낭분사시화浪噴四時花라
예련치천마曳練馳千馬요	경뇌주만거驚雷走萬車라
여파낙하처餘波落何處오	강전부양사江轉富陽(楊)斜라

어느 곳에 깊은 봄이 좋은가?  
 뱃사공 집에 봄이 깊어라.  
 파도가 번득이면 3월에도 눈이 오고  
 물결은 사시사철 물보라 품어내네.  
 비단자락을 끌고 천리를 달리는 듯하며  
 우리소리를 내고 만대 수레가 달리는 듯하구나.  
 여파가 어느 곳에 지는지  
 강은 부양(富陽)땅을 돌아 비껴 흐르네.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위의 시구 마지막 구절인 ‘江轉富陽(楊)斜’의 A본은 ‘陽’이고, B본은 ‘楊’이다. 이 한자는 지명을 가리키는 ‘富陽’의 ‘陽’이어서 A본이 옳다.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에도 ‘陽’이 맞는 것으로 교감하였다.<sup>21)</sup>

둘째, 11장 후면 9행의 구절은 백거이가 봄을 노래한 ‘和春深二十首’ 연작시(제 39수-제58수) 중의 제53수인 삼진날 계모임하는 집인 ‘上巳家’를 노래한 것 중의 제4구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하처춘심호何處春深好아	춘심상사가春深上巳家라
난정석상주蘭亭席上酒요	곡낙안변화曲洛(落)岸邊花라
농수유동도弄水遊童棹하고	전거소부거湔裙小婦車라
제요쟁도처齊櫓爭渡處엔	일필금표사一匹錦標斜라

어느 곳에 깊은 봄이 좋은가?  
삼진날의 각 집에 봄이 깊다네.  
蘭亭에는 자리 위의 술이오,  
曲落에는 언덕가에 꽃이로다.  
遊童은 노를 저어 물을 건너고,  
小婦는 수레 끄노라 옷을 적시네.  
돛대를 나란히 달고 떠나가는 곳은  
한 필 비단이 깔려있네.

위의 시 ‘上巳家’의 제4구인 ‘曲洛(落)岸邊花’는 A본은 ‘洛’이고, B본은 ‘落’이다. 이 글자는 ‘동계곡락(同禊曲洛)’이라고 굽은 물가에서 불계(祓禊)를 행한 기록이 있어 A본의 ‘洛’이 맞는 글자이다.<sup>22)</sup> 불계(祓禊)는 음력으로 삼월 삼진날(3월 3일)

21)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827-1838에 의하면, 본문에는 ‘楊’이 ‘陽’으로 되어 있다. ‘陽’이 맞다. 부양(富陽)은 항주(杭州) 30km 떨어진 서쪽 교외에 있다. 부춘강(富春江)이 동서로 가로질러 지나고 자연산수의 신운과 역사문화의 침적은 부양에 독특한 경관을 주고 있다. 이태백, 백낙천, 육유, 황공망(黃公望), 서하객(徐霞客) 등 문인들이 부양산수를 찬미하였으며 삼국시기 동오(東吳)황제 손권 등 역사명인도 배출되었다.

22)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827-1838에 의하면, 본문에는 ‘落’이 ‘洛’으로 되어 있다. 주대(周代)에도 이미 ‘동계곡락(同禊曲洛)’이라고 해서 굽은 물가에서 불계(祓禊)를 행한 기록이 있다. ‘洛’이 맞는 글자이다.

치르는 의식이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묵은 때를 씻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던 의식이다. 원래는 음력 3월 첫째 사일(巳日)인 상사일(上巳日)에 행하던 것이다.

셋째, 18장후면4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83수 ‘江樓月’의 구절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릉강곡곡강지嘉陵江曲曲江遲 한대  
명월수동인별리明月雖同人別離라  
일소광경잠상억一宵光景潛相憶이나  
양지음청원부지兩地陰晴遠不知라  
수로강변회아아誰料(科)江邊懷我夜리오  
정당지반망군시正當池畔望君時라  
금조공어방동회今朝共語方同悔하니  
불해다정선기시不解多情先寄詩라

가릉강(嘉陵江) 굽이마다 잔잔히 흐르는데  
명월은 옛날 같으나 사람은 이별하네.  
하룻밤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봤지만  
두 곳의 날씨는 아득하여 알 길이 없네.  
강변에서 나를 생각하는 밤인 줄 누가 알랴.  
연못가에서 그대를 그리워할 바로 그때  
오늘 아침에 함께 이야기하고 또 후회도 같이하니  
다정함을 풀지 못하여 먼저 글을 부치노라.

위의 시 ‘江樓月’의 제5구인 ‘誰料(科)江邊懷我夜’는 A본은 ‘料’이고, B본은 ‘科’이다. 이 시구의 해석은 ‘강변에서 나를 생각하는 밤인 줄 누가 알랴.’이니 해석상 A본의 ‘料’가 옳다. B본은 인쇄 시 착오로 들어간 글자로 여겨진다.

넷째, 22면 전면 7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96수 ‘風雨晚泊’의 구절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고죽림변노위총苦竹林邊蘆葦叢에  
정주일망사무궁停舟一望思無窮이라  
청태박지연춘우靑笞撲地連春雨요  
백랑흔천진일풍白浪掀天盡日風이라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홀홀백년개욕반忽忽百年皆欲半하고  
망망만사좌성공茫茫(芒芒)萬事坐成空이라  
차생표탕하시정此生飄蕩何時定가  
일루홍모천지중一屢鴻毛天地中을

양상한 대숲 가에 갈대 떨기에  
배를 멈추고 바라보니 생각이 끝이 없네.  
푸른 이끼가 땅에 깔렸으니 봄비가 잦았었고.  
종일토록 바람불어 흰 물결이 하늘을 뒤흔드네.  
어느덧 일생의 반이 거의 가고자 하니  
만사는 아득아득 이룩한 것 없어라.  
표탕한 인생살이 어느 때나 안정될까.  
천지간에 한 올의 깃털 같아라.

위의 시 ‘風雨晚泊’의 제6구인 ‘茫茫(芒芒)萬事坐成空’은 A본은 ‘茫茫’이고, B본은 ‘芒芒’이다. ‘茫茫’과 ‘芒芒’은 통용자이어서 뜻이 같은 글자이다.<sup>23)</sup>

다섯째, 26장 후면 2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110수 ‘鸚鵡’의 구절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농서앵무도강동隴西鸚鵡到江東하야  
양득경년자점홍養得經年鬢漸紅이라  
상공사귀선전시常恐思歸先剪翅하고  
매인위식잠개롱每因餒食暫開籠이라  
인연교어정수중人憐巧語情雖重이나  
조억고비의부동鳥憶高飛意不同을  
응사주문가무기應似朱門歌舞妓로  
심장뢰폐후방중深藏牢閉後房(旁)中이라

농서(隴西)땅 앵무새 강동에 와서  
한 해를 기르니 입부리가 점점 붉어지네.  
돌아가고플까 싶어 날개 먼저 자르고  
모이를 줄 때마다 잠시 열어 주네.  
사람이야 말 잘하는 것 귀여워 정이 깊다지만

23)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1102-1103. “‘芒芒’은 ‘茫茫’으로 되어 있는데, ‘芒’과 ‘茫’은 通用字이다.”

새야 높이 날기 생각하니 뜻이 같지 않네  
아마도 주문(朱門)의 노래하고 춤추는 기녀로  
골방 속에 깊이 숨겨둠과 비슷하리라.

위의 시 ‘鸚鵡’의 제8구 ‘深藏牢閉後房(旁)中’은 A본은 ‘房’이고 B본은 ‘旁’이다. 시구의 해석이 ‘골방 속에 깊이 숨겨둠과 비슷하리라.’이니, 해석상 A본의 ‘房’이 옳다.<sup>24)</sup>

여섯째, 28장 후면 4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118수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의 제목이다. 시의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상우도노도무자常憂到老都無子라가  
하황신생우시아何況新生又是兒아  
음덕자연의유경陰德自然宜有慶이니  
황천가득무도지皇天可得道無知아  
일원수죽금위주一園水竹今爲主나  
백권문장갱부수百卷文章更付誰아  
막려원추무욕처莫慮鸕雛無浴處하소  
즉응중입봉황지卽應重入鳳凰池라

늡도록 자식 없음을 늘 근심하다가  
무슨 일로 새로 아이가 태어나고 게다가 아들이니  
음덕은 자연히 경사가 있기 마련이니  
황천에게 도를 얹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산 가득 찬 물 대나무도 이제야 주인을 얻었지만  
백 권의 문장 다시 누구에게 전할까  
원추 새들 먹 감을 곳 없음을 염려하지 마라  
아마도 머지않아 다시 봉황지에 들어가리라.

위의 시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著(着)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의 제목은 A본은 ‘著’이고 B본은 ‘着’이다. 시구의 해석은 ‘나와

24)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692-1693. “後旁’은 ‘後房’으로 되어 있는데. 뜻으로 보아 ‘後房’이 옳음. 箋校에 의하면: ‘後房’의 ‘後’는 『文苑英華』에는 ‘在’로 되어 있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微之는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탄식하는 말이 나와 시에 담았는데, 금년 겨울에 각기 아들 하나를 두게 되었다. 장난삼아 두 편의 시를 지어 한편으로는 서로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자조하다'이다.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四 (上海古籍出版社, 2008), 1935-1936에도 '著'로 되어 있다. '著'와 '着'은 비슷한 뜻의 글자이며, '着'은 '著'의 속자(俗字)이다.

##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저자는 백거이(白居易, 772-846)이고 편자와 간행자는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다. 백거이의 시문집 75권 중 현재 71권이 남아 있다. 안평대군 이용은 백거이 시 3,000여 수 중에서 150제 185수를 뽑아 선집하여 『향산삼체법』이라 하였다. 말미에 세종 27년(1445)경에 붙인 안평대군의 발문이 있어 당시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향산삼체법』은 국내외에서 초주갑인자본으로는 낙장(앞부분 1-5장, 뒷부분 41장-42장)이 있지만 세종 27년(1445)경에 간행된 것임을 알려주는 유일본이다. 이 판본은 이후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저본이 되었고,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경본은 중종 10년(1515)경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되었음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2)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주갑인자본은 세종 27년(1445)경에 간행되었다. 보존 상태는 좋지 않고 각 장의 가장자리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다. 판식은 '四周單邊 22.6×15.9cm, 有界, 9行15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며, 총 42장 중 앞부분 1장-5장, 뒷부분 35장, 38장, 41장-42장에 결장이 있다. 표제는 첨제로 "香山詩"이고(<그림 1> 참조), 책의 권수제 부분과 끝부분의 안평대군 이용의 발문이 떨어져 나갔다. 이 책에서 활자를 10종씩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와 중종 10년(1515)경에 사용된 마멸된 초주갑인

자, 새로 인출된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 및 일부의 목활자 보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들 활자들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초주갑인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활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 10종은 전체적으로 해정한 필법의 글씨가 부드럽고 균정미가 있다. 이에 비해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 중 마멸된 활자 10종들은 전체적으로 가늘어졌고, 종획과 횡획이 교차하는 부분은 심하게 마멸되거나 균형미를 잃었으며, 좌우의 삐침 획들도 교차하듯 어우러지는 미적 균형이 없다.

둘째, 초주갑인자 활자와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초주갑인자 활자는 해정하고 균정미가 있고, 파임이 단순하며, 필체의 연결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는 훨씬 더 해정하고, 기필과 삐침이 매우 유려(流麗)하고, 파임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그리고 어떤 글자에서 필체의 흐름이 다음 글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셋째, 초주갑인자와 목활자 보자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들은 활자가 해정하고 정연하다. 이에 비해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 보주 목활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다. 초주갑인자 활자들은 활자가 해정하고 정연하다. 이에 비해 보주 목활자는 글자의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새김이 거칠고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글자체가 유난히 크고 뾰뚱하며 그중에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는 것도 있다. 글자체가 일그러져 있고, 횡획의 일부가 끊겨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글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3) 세종 27년(1445)경의 초주갑인자본을 A본,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B본으로 약칭하여 교감한 결과 6가지 사례가 추출되었다. 첫째, 11장 후면 4행은 백거이가 봄을 노래한 ‘和春深二十首’ 연작시(제39수-제58수) 중의 제51수인 뱃사공의 집인 ‘潮戶家’를 노래한 것 중의 제8구인 ‘江轉富陽(楊)斜’이다. 이의 A본은 ‘陽’이고, B본은 ‘楊’이다. 이 한자는 지명을 가리키는 ‘富陽’의 ‘陽’이어서 A본이 옳다. 둘째, 11장 후면 9행은 ‘和春深二十首’ 연작시(제39수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제58수) 중의 제53수인 삼진날 계모임하는 집인 ‘上巳家’의 제4구인 ‘曲洛(落) 岸邊花’이다. 이의 A본은 ‘洛’,이고, B본은 ‘落’이다. 이 글자는 ‘동계곡락(同禊曲 洛)’이라고 굽은 물가에서 불계(祓禊)를 행한 기록이 있어 A본의 ‘洛’이 맞는 글자이다. 셋째, 18장 후면 4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83수 ‘江樓月’의 제5구인 ‘誰料(科)江邊懷我夜’이다. 이의 A본은 ‘料’이고, B본은 ‘科’이다. 이 시구의 해석은 ‘강변에서 나를 생각하는 밤인 줄 누가 알랴.’이니 해석상 A본의 ‘料’가 옳다. B본은 인쇄 시 착오로 들어간 글자로 여겨진다. 넷째, 22면 전면 7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96수 ‘風雨晚泊’의 제6구인 ‘茫茫(芒芒)萬事坐成空’이다. A본은 ‘茫茫’이고, B본은 ‘芒芒’이다. ‘茫茫’과 ‘芒芒’은 통용자이어서 뜻이 같은 글자이다. 다섯째, 26장 후면 2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110수 ‘鸚鵡’의 제8구인 ‘深藏牢閉後房(旁)中’이다. A본은 ‘房’이고 B본은 ‘旁’이다. 시구의 해석이 ‘골방 속에 깊이 숨겨둠과 비슷하리라.’이니, 해석상 A본의 ‘房’이 옳다. 여섯째, 28장 후면 4행은 백거이의 칠언율시 중 제118수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蒼在詩篇 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의 제목이다. A본은 ‘著’이고 B본은 ‘着’이다. 두 글자는 비슷한 뜻의 글자이며, ‘着’은 ‘著’의 속자(俗字)이다.

### <참고문헌>

-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51-82.
-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 강순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65-107.
- 강순애.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본. 세종 27년(1445)경.
-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중종 10년(1515)경.
-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혼입보자번각본. 명종 200년(1563).
-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3-120.
-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千惠鳳.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17-337.
-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95-118.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15. 4. 20]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97-106.
- <[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 [cited 2015. 4. 20].